
진주박물관과 한영희 선생

권 상 열*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과거 시공을 함께 했던 날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갑작스레 한영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사실은 지난 4월 고고역사부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연수 기간 중이라 특별히 연락받을 사항이 없을 텐데 말이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고고학지 제25집을 고 한영희 선생님 추모 20주기 기념호로 발간할 계획이라는 소식과 함께 회고 및 추모편에 답을 「진주박물관과 한영희 선생님」이란 주제의 글을 부탁받은 것이다. 설명을 듣고서 사실은 적잖이 난감했다. 우선은 대략 30년이란 시간의 흐름을 뒤돌아보아야 하고(짧은 기억력으로), 게다가 나로서는 당시 진주박물관 근무가 초년병이라 뭐 하나 제대로 알거나 하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으니, 무엇을 어떻게 회고할 수 있겠는가? 신축 박물관의 개관 관련 사항이나 향후의 운영 방향, 지역사회에서의 박물관의 역할 등등 모두가 나의 좁은 식견으로는 아무래도 헤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아시는 것처럼 한영희 선생님은 1984년 3월부터 1989년 8월 초까지 국립진주박물관 초대 관장으로 재직하셨다. 선생님께 첫인사를 드린 것이 1984년 6월이었으니 대략 5년여를 함께 근무한 셈이다. 진주박물관의 역사에서 보면 이 무렵은 한마디로 신축 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함께 영남 일원의 가야문화를 집성 전시한 가야전문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착실히 다져나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임진왜란 극복사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것이었다. 즉 당시의 과제는 크게 가야지역의

* 전 국립대구박물관장

문화유산들을 보다 폭넓게 전시하기 위한 자체 전시품을 확보하는 것과 임란극복사 자료의 수집이었다. 이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한편으로는 전시기능 외에도 유적조사라든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등 이른바 박물관의 기본적 기능들을 수행해가면서 지역의 역사문화계나 교육계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셨다. 이와 같이 신설 박물관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갈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로는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셨던 선생님의 외부 교유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선생님께서 진주박물관 안팎에 남기신 행적들을 몇 가지 되돌아보고자 한다. 필력이 부족한 데다 짜임새가 없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신설 국립진주박물관의 개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신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신축 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역시 전시 유물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아시다시피 진주박물관은 1978년 건립계획안이 확정되고 그 이후 1980년 10월 기공식을 거쳐 마침내 1983년 12월 473평의 전시실을 포함한 연면적 1,500여 평의 건물이 완공되었다. 전시의 성격은 크게 가야의 역사와 문화(이 지역 선사문화 포함)를 조명하며 더불어 임진왜란 관련 전사 자료를 모아 전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설 박물관이라 자체 소장품이 한 점도 없는 상황에서 가야사와 임란사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하는 첫 작업인 데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매우 지난한 일이었다.

각고의 노력(이 한 마디로 표현하기에 매우 부족하지만)으로 국립박물관과 전국 각지의 대학박물관으로부터 다수의 전시 대상 자료를 임시이관하거나 대여를 받았다. 게다가 이들을 전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척하고 수리 복원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실 이들 대다수의 유물은 그동안 한 번도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었던 미공개 자료로서 많은 손길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무렵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껏해야 유물목록 작성이나 전시 보조원으로서의 역할 등 매우 미미한 일이 고작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유물 확보나 진열 작업 외에도 가야박물관으로서의 역사적 개관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와 개관 당일 의식에 관한 사항을 챙기시느라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매우 무거웠을 것이다. 아마도 이 무렵의 선생님을 표현한다면 “밤낮없이 일만 하셨던 분”이라는 과거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하는

평가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중후한 이미지를 보이시며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중책을 무리 없이 수행하셨다. 개관식이 있던 날은 우리나라 축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개천예술제가 개막하는 날이어서 많은 관람객들과 3백여 명이 넘는 내외빈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흔히 진주를 서부경남 최고의 유서 깊은 고장으로 역사·문화·예술·교육의 중심지라고 한다. 서북쪽으로는 지리산이 자리하고 남동으로는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남으로는 가까이 남해 바다가 열려 있다. 즉 진주는 영·호남과 중·남부지역 간을 이으며 동시에 바다와 육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와 같은 인문지리적 환경은 선사시대 이래 끊임없이 인간의 삶이 이어져 온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진주는 고대로부터 중근세 시대에도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조선 고종 33년 전국을 13도로 개편함에 따라 경상남도의 수부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 경남도민과 진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에 부응하여 마침내 1984년 11월 2일 진주박물관이 우리나라 일곱 번째 국립박물관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박물관이 자리한 이곳 진주성은 임진왜란 3대첩지의 하나로써 호국의 역사 현장이다. 그동안 경향 각지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인근 축석루와 논개 사당을 주로 방문하였지만, 이제는 진주박물관이 새로운 관람 명소가 되어 서부 경남지역에서 전개된 선사시대의 문화상을 개관하면서 가야문화의 상세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진주박물관 개관 이전까지는 도시의 성격과 유구한 역사에 걸맞은 문화시설이나 체계적인 역사 관람시설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개관 후 4년이 지나서야 겨우 도민의 문화복지 실현과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문을 열게 된다. 이제 도시의 격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역사문화계와 언론으로부터 진주박물관이 주목받는 만큼 차츰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당시 관장님께서서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정서를 잘 파악하시면서 결코 서두르시지 않고서 박물관의 제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추진해 나가셨다.

다음은 1985년 “임진왜란문물전”이라는 명칭으로 개관 이후 첫 특별전을 개최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진주성은 과거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크게 승전고를 올린 역사의 현장이다. 따라서 임진왜란 관련 전사(戰史) 자료를 모아 국난극복사를 조명하는 것이 진주박물관 건립목적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이 전

시에서는 박물관의 입지와 지역성을 고려해 당시 진주성 전투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의병 활동을 하신 분들의 관련 유품들을 모아 보여줌으로써 임진왜란의 전개와 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84년 상설전시실 개관 때와 마찬가지로 1985년 특별전 역시 임진왜란 관련 소장 자료가 전무한 데다 임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직원도 없이 추진된 전시였기에 책임자로서 매우 힘든 일이 아니었던가 싶다. 영호남 각지에서 의병 활동을 하신 분들의 관계 후손을 찾아다니는 일을 비롯하여 경상남북도청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거나, 대학박물관·사립박물관의 방문은 물론, 심지어는 개인 소장가까지 그야말로 전국 각지를 다니시며 전시 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특히 농번기에 의병장 후손택을 방문하였을 때는 생업을 위해 모두 집을 비운 상태라 수소문하여 들판의 농사 현장까지도 찾아다니셨다. 계속되는 이러한 열정적 업무추진과 고된 여정으로 선생님의 입술은 항상 터진 상태(수포)였고 멀쩡한 날이 별로 없었다.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음을 새삼스레 떠올려 본다. 하여튼 이렇게 하여 문을 연 특별전 “임진왜란문물전”은 관람객들로부터 매우 호평을 받았고 후손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이 특별전은 출품자들의 동의를 얻어 전체 전시기간이 2년에 가까울 만큼 긴 시간 동안 연장전시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진주박물관의 상설 임진왜란실과 비교해 보면 전시의 목표와 방향, 공간의 배치와 유물의 구성, 전시기법과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격세지감이 크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새로운 주제의 전시로서, 국난의 어려운 시기에 민족을 위해 희생정신으로 투쟁하신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 전시가 아니었던가 싶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영 연대도와 옥지도 패총 유적에 대한 학술발굴조사와 연구에 기여한 성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연대도 패총은 단일유적으로서 그 형성범위가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신석기시대의 집단 매장시설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그 중요성이 학계에 널리 알려졌다. 이 유적은 신석기시대 무덤의 구조나 매장방법의 규명, 나아가서는 출토 인골에 대한 형질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당시의 생업형태 및 주민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옥지도 유적 또한 연대도 패총과 마찬가지로 인골과 함께 2기의 무덤이 조사되었으며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 가운데 흑요석제 석기들은 흑요석의 산지 문제, 남해안 지역과 일본 규슈지방과의 교류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두 유적의 상세한 내용과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연대도와 욕지도 패총은 진주박물관에 의해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 각각 4차례와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선생님께서는 조사단장으로서 양 유적의 1차 발굴을 지휘하셨다. `89년 서울 발령 이후에도 이어지는 연차 발굴조사와 연구, 보고서 발간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셨음은 물론이다. 특히 신석기문화를 전공분야로 하시는 입장에서 이 두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매우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셨으리라 믿는다.

이외에도 가야문화권 유적보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김해 양동리 고분군의 조사라든가 합천댐 수몰지구 내 문화유적 조사 등 다수의 유적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진주박물관의 학술발굴조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셨다.

상설전시실의 정상 운영과 임진왜란 특별전 개최 등 전시기능이 안정되고 조사연구 분야 또한 활발해지면서 점차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먼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학습교실과 문화학교의 문을 열었다. 실물 중심의 문화재에 대한 해설과 문화영화 상영 및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문화재사랑 사생대회 및 백일장을 개최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문화재 애호사상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셨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백일장의 운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한 가지 떠오르는 일은 당시 심사를 모두 외부 전문가 즉 인근 대학의 교수들에게 의뢰하였는데, 학생들의 원고를 소지하고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교수연구실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난다. 수십 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들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당신께서는 사전에 적합한 심사위원 몇 분을 선정하시고 부탁까지 해 놓으신 상태였으니, 이미 해당 업무의 대부분을 직접 처리하신 것이 아닐까! 언제 이렇게 지역사회 문화예술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 등 다방면에 걸쳐 교유의 폭을 넓혀오셨는지? 사실 이 부분은 연구실의 여러 사업을

진행하거나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항상 느껴왔던 점이다.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 확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부연할 사항은 일반 성인 대상의 문화강좌를 새롭게 개설한 일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6년 여름방학 기간에 처음 운영하였다. 명칭은 제1회 박물관강좌였는데,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박물관회가 후원하였다. 강의 내용은 전통문화 전반을 개설적으로 다루었으며 마지막 날은 중요 유적 답사로 구성하였다. 꽤 좋은 반응 속에 지역민들의 인문학적 교양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당시 진주지역에는 이러한 유형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기관이나 교육시설이 흔치 않은 데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사계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위촉한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개설 당시 강사진 또한 대부분 직접 섭외하셨던 것으로 회상된다. 수강자 중에는 교육계 종사자가 많았다.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바로 이 문화강좌가 “진주박물관회”(현재의 박물관회와는 별개임)의 발족에 긍정적 분위기 조성과 상당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시 수강자 중 한 분(초등 교장)이 진주박물관회 회장을 맡으셨고 박물관회는 이후 박물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박물관회가 설립되기까지 의당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 몇 가지 일들을 연구실에서 처리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지방 국립박물관들이 그 지역의 국립박물관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미 30여년 전 박물관 후원단체로서 박물관회의 존재 가치와 그 중요성을 미리 내다보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단순히 그 소임의 하나로 보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 진주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비전)과 같은 큰 청사진 속에서 전시와 조사연구,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등 내부 업무의 실행은 물론, 박물관회 발족을 비롯한 외부 기관과의 관계망들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거나 추진하셨음이 틀림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박물관 개관 당시의 모습과 내부 업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일들을 회고해 보았다.

좁은 시야로 인해 다소 괴리가 있거나 표현이 적합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선생님께서 진주 재직 당시 남기신 흔적이나 체취가 묻어나는 일, 또는 그 모습들

을 좀 더 가까이 느껴보고자 당시에 함께 근무했거나 인연을 맺었던 몇몇 분들을 만나보았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박물관 밖에서의 활동상을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정부 공공기관 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모여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진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선생님께서 당시 이 진주지역 기관장 모임의 총무를 맡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는 사실이다. 전국 각지에서 근무해 본 필자의 경험에 미루어보면 신생 기관의 장이 정례적인 만남을 갖는 그 지역 기관장 모임의 총무역을 맡는 것을 한 번도 보거나 듣지를 못했다. 대개는 그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요 역할을 해온 교류의 폭이 넓은 기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하튼 당시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선생님께서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기관장들과 친분을 쌓으시면서 차츰 진주박물관의 입지를 더욱 다지고 외연을 넓혀 나갔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진주를 떠나신 후에도 오랫동안 근무처와 안부를 묻는 인사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인품과 친화력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오르내렸다.

또 하나는 〈일요구락부〉라는 사설 모임에서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모임은 일요일에 만남을 가지며 크게 옛 문화 사랑과 회원(가족)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육자, 도예가, 의료인, 기업가, 공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그 가치를 함께 나누었다. 이 모임에서도 관장님은 중심에서 역할을 하셨으며 연말 송년모임 등 종종 박물관 공간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다. 사견이지만 관장님께서는 평소 이 모임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진주를 떠나신 후에도 교류는 계속하셨다. 기억이 흐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매우 머뭇거리지지만..., 별세하시기 전 그다지 오래지 않은 시점의 일이다. 이 지역 모 회원택을 방문하여 숙박까지 하시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 그날은 손수 장거리 운전을 하셨다. 조수석에 동승하였는데,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정말 아파온다. 현재도 이 모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몇몇 회원께서는 지금도 진주박물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행사 때마다 참여하신다. 아직도 회원들의 마음 한편엔 분명 선생님의 숨소리와 천진스런 미소가 자리할 것이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에 박물관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한국전통문화를 널리 알리시는 마치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것은 아닐까.

서부 경남의 고도 진주에서 “가야박물관 개관”이라는 역사적 기록이 써진 지 어느덧 35년, 또 선생님께서 진주를 뒤로하신 지로는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진주박물관 건물 안팎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정원과 주변의 수목들이 더욱 울창해졌는가 하면 야외 전시공간과 청석 담장의 모습에서도 세월의 깊이를 느껴보기에 충분하리라.

한편 상설전시실 또한 몇 차례의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임진왜란사를 특화한 박물관으로 재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재일교포 실업가 두암 김용두 선생의 기증품을 전시하는 상설 기증실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 문화 행사, 조사연구, 국제교류 분야 등도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진주박물관은 더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심 문화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보는 물상들에서는 짐짓 많은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도 바뀌지 않은 사실도 있는 듯하다. 바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와 진주지역에 남기신 발자취들이다. 개관 초창기 아직 공직에 적응치 못한 다양한 성격의 직원들을 따뜻한 리더십으로 포용하고 화합을 도모하셨던 일, 항상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고, 경조사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던 모습들이 여전히 회자된다. 문득 박물관 옆 청계서원에 우뚝 서있는 “流芳百世”라는 기념비의 문구가 새삼 마음에 와닿는다. 직원들을 배려하고 온정을 베풀어주신 생전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1989년 진주박물관을 떠나실 때 재직기념패에 담아드린 나의 짧은 글을 옮기며 두서없는 글을 마친다.

남가람 굽이굽이 옆에 끼고서
먼 눈으로 뒤버리 불러치면
그 사이 진양호 등에 와 업힌다

가야의 얼 찾아 굽어본 지 다섯여 해
그 발길 따순 맘 다 묻어 두고
아쉬움 뒤로 한 채 석별을 고하니

하기사 어드맨들 어떠리요만
그 자취 영원히 여기 아로새김에
함께 한 얼굴얼굴 마음으로 감싸주소서